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

2026. 04. 03.(금)

나프타 도입과 석화제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문화일보는 「“석화업계 이달 생산중단 가능성” 중동사태에 기업 신용하향 우려」 제하 기사에서,
 - 편도로 25일 정도인 중동 해상운송 기간을 감안할 때 중동발 원재료 입고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만간 풀리지 않으면 생산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석유화학 생산차질을 해소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함께 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, 수입대금 저리융자 지원, 수출물량 내수전환 및 범정부 공급망 체계 상시 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중동상황에 따른 중견·중소 피해기업 및 협력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권이 함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 및 공급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	책임자	과 장	김건혁 (044-203-49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총희 (044-203-4932)
	화학산업과 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박재훈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효빈 (02-2100-2862)